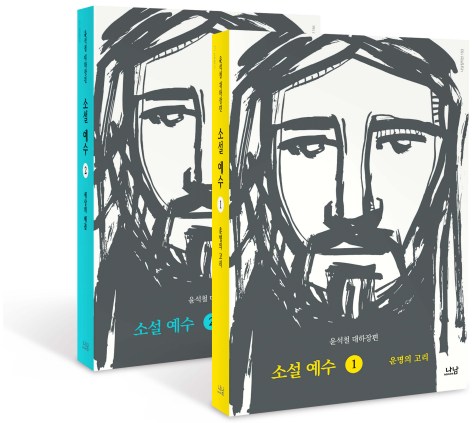
나남
nanam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193 나남출판 (10881) T. 031-955-4601 F. 031-955-4555

윤석철 대하장편

소설 예수
1~2



신국판 · 2020년 4월 12일 발행
1권 568쪽 · 14,800원 · ISBN 978-89-300-0653-8 (04810)
2권 624쪽 · 15,800원 · ISBN 978-89-300-0654-5 (04810)

“나는 메시아가 아니오!”
새로운 세상을 꿈꾼 혁명가 예수의 고독한 투쟁을 그린 대작

예수가 구원의 메시아라는 오래된 통념을 깨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실현하려 했던 혁명가 예수의 뜨거운 투쟁을 새로운 시각으로 그린 대하장편소설이 출간되었다.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한 예수가 이스라엘을 지배한 로마제국과 예루살렘 성전의 음모에 맞서 핍박받고 상처 입은 이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를 웅장한 스펙터클의 서사로 풀어냈다.

책장을 펼치는 순간 흡입력이 강한 스토리텔링과 스피디하고 박진감 넘치는 문장, 역사와 삶에 대한 작가의 깊은 통찰력을 만날 수 있다. 작가의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취재를 통해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현실을 오늘의 눈높이에서 서술했다. 작품 속 예수의 혁명선언은 오늘의 독자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준다. 그것은 예수가 꿈꾸고 실현하려던 세상, 가장 낮은 사람들이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는 그날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세상을 꿈꾼 혁명가, 가장 인간적인 예수를 21세기 소설로 만나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오!" 이 소설 속 예수의 선언이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오랜 통념을 뒤엎는 충격적인 대사다. 이 소설은 '신이 아닌, 인간 예수는 정녕 어떤 사람인가'라는 오래된 질문에 가장 인상적인 답을 내놓는다. 종교적 시선에서 벗어나 당대 사회와의 역동 속에서 다시 본 예수는 다름 아닌 혁명가, 억압받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 세상을 바꾸려 했던 사람이다. 로마제국의 식민지였던 2000년 전의 이스라엘 하층민 가정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 사회의 부조리에 눈떠 자신의 길에 대해 고뇌하며 지배체제에 맞서고 마침내 스러지기까지를, 고고학에서부터 새로운 성서연구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자료를 바탕에 둔 치밀한 고증과 소설적 상상력으로 복원해냈다. 성서에 기록된 행적만으로는 읽어낼 수 없는, 한 혁명가의 뜨거운 투쟁과 좌절의 과정을 소설이라는 형식으로 생생히 담아냄으로써 예수는 가장 인간다운 인간으로 되살아난다.

거대한 체제 대 고독한 인간, 숨 막히는 긴장과 치열한 대결의 드라마

예수의 처형 전 마지막 일주일을 배경으로 하는 이 전 5권의 대작에는 체제를 부정하는 예수와 체제를 수호하려는 지배세력 간 스펙터클한 대결이 담겼다.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제국과 그에 협력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 예수의 가르침은 용인될 수 없는 '불온한' 것이었고, 따라서 예수는 위험한 인물이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그 체제하에서 살아가는 이들이기에 예수의 뜻을 진정으로 이해하지는 못하며, 예수를 이해하는 제자는 성서에 제자로 기록되지 않은 막달라 마리아뿐이다. 따라서 예수는 가장 고독한 사람이기도 했다. 그런 예수의 반대편에서 로마총독 빌라도, 갈릴리 분봉왕 안티파스와 그의 심복 알렉산더, 예루살렘 성전 대제사장 가야바와 같은 지배세력이 제자 무리들 중 첩자를 잠입시켜 예수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준비한다. 예수는 자신을 기다릴 결말을 알면서도 묵묵히 그에 맞서 자신의 길을 간다. 그 시작을 알리는 1, 2권은 예수를 향하는 덫이 점점 조여 오는 과정이어서 독자로 하여금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게 한다. 이처럼 작가가 능수능란한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낸 이 절박하고 치열한 대립구도는 독자를 순식간에 작품 속의 세계로 빨아들인다.

2000년을 뛰어넘어 오늘의 삶과 사람의 길을 묻다

진보적 신학에 깊은 관심을 가진 작가가 오랜 세월 참된 신앙과 더불어 사는 세상에 대해 고민해온 흔적이 소설에 고스란히 담겼다. 역사와 삶에 대한 작가의 깊은 통찰이 곳곳에서 빛난다.

지배구조의 억압과 수탈, 대중 조작에 대한 고발은 정곡을 찌를 듯 날카롭고 매우 시의적이어서, 자연스럽게 독자 역시 세상에 대해 질문을 던지게 된다. 소설 속 예수가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 의문점을 가지고, 그에 대한 나름의 답, '낮은 곳으로 향하는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과 싸웠던 그 여정에 독자 역시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와 같은 문제의식을 지녔으면서도 다른 길을 걷는 예수의 친구 히스기야를 보면서, 예수에게 사회적 상처의 치유를 받는 소외된 이들을 보면서, 또 예수에게 감화되었으면서도 세속적이고도 인간적인 욕망을 어쩌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독자는 사회와 자신이 맺어온 관계, 그리고 자신의 삶의 태도를 되돌아보게 된다. 이처럼 소설 속 예수와 등장인물들의 삶을 통해 독자는 오늘의 세상을 성찰하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된다. 새 세상에 대한 예수의 문제의식은 시대를 초월하기 때문이다.

구상부터 출간까지 15년, 혼신의 힘을 다한 역작

탄탄한 스토리텔링과 강렬한 문체에서 작가의 원숙미가 엿보이는데, 놀랍게도 작가의 첫 작품이다. 작가는 전 5권의 이 대하소설이 어떤 약속에서 시작했다고 고백한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소설을 쓰겠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고 실제 2005년 이후 고고학부터 신학까지 접근가능한 모든 자료를 수집했다. 그리고 마침내 2000년 전 예수의 삶을 소설로 풀어낸 작품이 출간되기까지 총 15년이 걸렸다.

지은이 소개 | 윤석철(尹錫鐵)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아흐레 전, 충청남도 공주, 계룡산 밑에서 태어났다.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면서 학내 이념 동아리 활동으로 날을 보냈다. 사회과학적 접근에 눈뜬 이후,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일에 대해 끊임없이 물었다.
41년째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2005년부터 〈한국일보〉와 〈hankooki.com〉에 2년여 동안 매주 기명칼럼을 연재했다. 2012년 진보적 기독교 신학자, 목회자 등과 《내게 찾아온 은총》이라는 신앙고백서를 공동 저술했다.

줄거리 미리보기

제 1권 | 운명의 고리

2000년 전, 유대의 해방명절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다. 한밤중 예루살렘 성전과 갈릴리의 분봉왕이 보낸 사자들. 그리고 예루살렘 주둔 로마군 위수대장까지 로마총독 빌라도의 군영으로 찾아와 예수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한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이끌고 내려온 예수는 여리고에 머물면서 다음 날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한다. 그가 메시아이기를 기대했던 제자들 앞에서 예수는 뜻밖에 '나는 메시아가 아니오'라고 선언하는데….

제 2권 | 세상의 배꼽

로마총독 빌라도는 군대를 이끌고 입성하여 옛 헤롯 왕궁에 들어가 예루살렘을 장악한다. 여리고에서 예수는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는 하느님의 사랑을 가르친다. 가혹하게 수탈하는 로마제국과 로마에 협력하며 지배자로 군림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면서 제자들 숫자는 점점 불어나지만, 그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는 이는 막달라 마리아뿐이다. 한편 예루살렘에서는 로마총독, 예루살렘 성전, 갈릴리 분봉왕 안티파스가 예수를 제거할 명분을 차곡차곡 준비하는데….

제 3권 | 닫힌 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예수는 제물을 파는 장사꾼과 환전상들을 내쫓고, 제자들은 그저 선생을 지켜만 본다. 예수와 제자들 사이에 점점 틈이 벌어진다. 하얀리본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히스기야를 주랑건물 위에 내세운 로마군과 성전경비대의 계략은 실패한다. 한편, 랍비 요하난은 예수가 지금 붙잡혀 처형되면, 새로운 세상을 이루려는 그의 운동이 실패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갈릴리로 물러나 때를 기다리라 권한다. 예수는 깊은 고뇌에 빠지고….

제 4권 | 땅으로 내려온 하늘

성전에서 있었던 일로 제자들이 격렬하게 불평을 터뜨리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예수가 죽음으로 새 세상을 여는 메시아임을 증언한다. 바라바가 이끌었던 하얀리

본의 봉기는 처참하게 실패하고, 미끼로 던져졌던 히스기야는 로마군 위수대에 넘겨진다. 그날 밤, 올리브산 기슭에서 기도하던 예수가 체포되고 제자들은 모두 흩어져 달아난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간 예수는 재판을 받으며 마지막 밤을 맞고, 아들을 찾아 나사렛에서 올라온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이 굳게 닫힌 성문 앞에서 날이 새기를 기다리는데….

제 5권 | 문이 열리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를 로마총독 빌라도에게 넘긴다. 막달라 마리아가 알렉산더에게 예수의 구명을 부탁하지만 매몰차게 거절당한 채 쫓겨난다. 마침내 로마총독의 처형 명령에 따라 언덕 위에 세워진 3개의 십자가. 십자가 위에서 히스기야가 나사렛 동무 예수를 스승으로 받아들이고, 바라바는 모두 허상이었다고 절규한다. 십자가 아래에서는 어머니 마리아가 가슴속에 간직했던 사연을 예수에게 털어놓고, 제자 막달라 마리아는 마음속으로 사모했던 히스기야와 함께 매달린 예수를 올려보다가 깜짝 놀라며 깨닫는데….

작가의 말

이 글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약속이 4년 동안에 걸쳐 이 글을 쓰도록 저를 이끌었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한 4년 전 어느 날, 우르르 몰려든 손주들, 만 7살, 6살, 5살짜리 손녀들과 3살 된 손자가 한입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컴퓨터로 뭐 하세요?" / "너희들이 크면 읽을 글을 쓴다."

"왜요?" / "약속이니까…." / "누구하고 무슨 약속했어요?"

"그분하고…. 내가 만난 그분이 나보고 그분 뜻을 깨달았으면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살 수 없었거든? 그래서 '제가 글을 쓰는 것으로 눈감아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지."

"그래서 허락받으셨어요?' / "그냥 웃으시더라."

"그분 어디 사세요?" / "2천 년 전에 멀리 저쪽에 사셨던 분이다." / "아하!"

손주들은 더 묻지 않고 '아하! 아하!' 하면서 고개만 끄떡였습니다. 약속이니까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2천 년 전 저쪽'에 살았던 분을 만났다는 말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 있으리라고 믿는 나이였으니까요.

2005년부터 자료를 모으고 그 자료에 빠져 세월을 보내다가, 2016년 5월, 저에게 의미 있는 어느 날부터 실제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에 나오는 2천 년 전의 그 땅과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이 살아가던 시대의 문제를 함께 아파하고, 그들의 호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언어로 번역해야 했습니다. 그때 거기 살던 사람의 눈으로 보아야 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는 깊은 산에서 시작한 강물이 흘러내린 하구에 살기 때문입니다.

(중략)

2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날 아무 의미 없는, 다만 과거의 옛일이었다면 제가 그 일을 더듬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붙잡고 살아가던 문제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문제라서 이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2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때 거기 살았더라도, 그분이 2천 년 후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풀어 우선 1, 2권을 이번에 먼저 출간합니다. 2020년 연말까지 3권, 2021년에 4권과 5권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누구나 그 결말을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를 쓰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인류가 안고 살아가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기술에는 모두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왜?'라는 질문 앞에 서면, 대답하는 사람의 인생관과 철학, 사상에 따라 다른 대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라는 질문에 대해 오래전에 주어졌던 명확한 대답 대신, 저와 함께 각자의 대답을 찾으러 떠나시기를 권합니다.

- 서문 中

책 속으로

그는 깨달았다. 앞에 앉아 있는 예수, 어릴 적 동무였고, 인생길의 친구였고 아직도 친구지만 그는 이미 폭력으로 꺾을 수 없는 세상에 들어간 사람, 폭력보다 더 깊고 큰 무엇을 가진 사람이다. 제국이 가진 것이 폭력뿐이라면 제국도 그를 멈출 수 없으리라고 느껴진다. 1권, 317쪽

예수는 두 갈래 길에서 이쪽 길을 걸었고, 히스기야는 저쪽 길을 걸었을 뿐이었다. 그건 아마 갈림길에 이른 시간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리라. 그의 때였다면 예수도 히스기야의 길을 걷고, 예수의 때였다면 그도 예수의 길을 걸었음에 틀림없다. 1권, 324쪽

눈앞에 서 있는 제국은 로마지만 예수의 눈에는 고대로부터 이어져온 수많은 제국들이 보였다. 세상을 삼킬 만큼 커다란 입과 오로지 한 가지만 바라보는 외눈박이의 얼굴을 한 제국이었다. 1권, 408쪽

예수가 베푸는 치료는 다른 의사들의 치료와 달랐다. 병에 따른 증상을 치료한 것이 아니고, 병에 따라붙었던 사회적 소외, 배제를 해소해준 치유였다. 병자를 배제했던 사회적 관계를 바로잡아주고 회복시키는 일이었다. 1권, 417쪽

예수의 다정한 한 마디가 삭개오를 무너뜨렸다. 그가 살아온 삶 전체를 꿰뚫어 본 위로였다. 세상에 슬픔과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누구에게나 여린 속살이 있게 마련이다. 속살은 누구의 살이든 따뜻할 뿐이다. 속살은 상처받기 쉽고, 가장 민감하게 아픔을 느낀다. 속살을 내보인 사람은 따뜻한 위로의 말을 들으면 울음을 터뜨리기 일쑤다. 비록 단단한 껍질을 쓰고 있었더라도. 1권, 422쪽

"누군가를 꼭 메시아로 부르고 싶다면 여러분 모두 메시아입니다."
숨이 턱 막혔다. 시몬이, 안드레와 야고보가, 요한이, 그리고 집주인 삭개오, 심지어 여자인 마리아까지 메시아로 부를 수 있다니, 그건 세상이 뒤집어졌다는 얘기다. 뜨거운 방안 열기에 취한 듯 모두 정신이 몽롱했다. 1권, 436쪽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었지만 그는 그 길을 혼자 걷는 것처럼 외로운 사람이었다. 갈릴리 산과 들과 강을 마음속에 담아두며 다시 걸어서 돌아가지 못할 길을 그는 걸어왔다. 2권, 19쪽

그 슬픔과 아픔이 그 자신의 슬픔과 아픔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요한은 알 수 있었다. 어쩌면 그는 모든 사람이 느끼는 아픔과 슬픔, 그런 삶을 꿰뚫어보고 있는 사람인지 모를 일이었다. 2권, 125쪽

그건 위험한 나라다.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나라다. 그건 물을 가득 담아 놓은 저수조에 구멍을 뚫는 일이다. 그건 다스리는 사람과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위아래를 뒤바꾸는 일이다. 예수가 이루려는 하느님 나라는 결코 로마가 용납할 수 없는 나라였다. 2권, 291쪽

"… 그런데, 광야에서 돌아오셨을 때 그 손에 박혀 있는 굳은살이 조금도 딱딱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예, 좀 이상한 말처럼 들리지만 말랑말랑하게 느껴지는 굳은살이었습니다. 아기 손같이, 어머니 손같이 부드러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빌립이 굳은 것보다 부드러운 것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모양이지요." 2권, 373~374쪽

해가 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시간, 옹기종기 붙은 집들 위로 어둠이 안개처럼 내려앉기 시작하는 시간, 집집마다 조그만 불빛이 새어 나오는 시간, 하루 종일 무겁게 끌고 다니던 그림자가 몸을 놓아두고 떠나는 시간, 그때면 왠지 슬픔이 목을 타고 올라오고, 어디라도 주저앉아 꺼이꺼이 울고 싶어졌다. 2권, 383쪽

주어진 해방을 그저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유의 땅으로 걸어가도록 인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사람을 태우고 강을 건너는 배가 되든지, 배에 탄 사람을 건너편 약속의 땅에 내려주는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2권, 409~410쪽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제 깊은 잠에서 깨어날 수밖에 없는 때가 됐다. 그들을 깨우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이다. 예수가 성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2권, 597쪽

문의: 나남출판 편집부 이한솔 031-955-4647